전법 일기

하루하루 변해가는 초등학생 천진불들

어느 날 해질 무렵 개천가를 거닐고 있었다. 징검다리 저 멀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이 나를 보더니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며 건너왔다.

"스님은 어디 살아요?"

"절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으면서 옆에 있던 엄마와 어린 동생을 뒤로한 채 졸졸 따라오는 아이.

"스님! 삭발은 왜 해요? 친구는 있어요? 뭐 먹고 살아요?"

호기심 가득,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질문을 퍼붓는 아이가 새삼 반가웠다. 아이는 "나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겠다"며 웅장원을 둘러보고 갔다. 다시 찾아올 아이를 위해 법당에 간식 코너도 만들고, 냉장고에 아이들이 좋아할 음료를 꽉 채워놓고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하루는 사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초등학생 서너 명이 자전거를 끌고 웅장원을 향해 손짓하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쿠, 오늘은 천진불을 모셔야겠다'고 다짐하고 죽비로 마지를 모시는 찰나에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힘차게 인사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들. 반갑게 맞이하며 다시 보니 초하루법회에 할머니 손잡고 종종 오던 아이였다. 그때는 낯을 가리며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아이가 오늘은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닌가.

다음날 아침 7시. 책상에서 우연히 CCTV를 보는데, 잠긴 출입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장 달려온 것 같았다. 자다 깨서 바로 왔는지 머리에 생긴 새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아침밥을 같이 먹은 뒤부터 여름방학 내내 동네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아침 7시 웅장원에 출석도장을 찍었다.

처음에는 아마도 간식 때문에 신나게 찾아왔을 천방지축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차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연꽃 같은 지혜를 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툰 친구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고민을 풀어놓았고, 웅장원에 오지 못할 때는 문자 상담을 이어갔다.

어떤 때는 살아온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런저런 상황이 낯설 수 있는 아이들이 자기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이나 '인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했다.

감정 통제가 어려운 아이는 생각하는 의자에서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친구들과 다 같이 기다려주고, 시간 약속 관념이 없는 아이에겐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다.

'얼음이 담긴 물잔엔 그저 얼음물이 있을 뿐, 얼음물이 좋다 싫다 분별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

아이들은 그렇게 슬기로운 웅장원 생활을 경험하며 하나씩 소중한 천진불로 성장했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① 부처님의 하이파이브

네가 없는데 어찌 내가 있을까

동아리 학생들과 한 해 수업을 마무리하며 더 잘하자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서로 한 손뼉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데, 의외로 합이 맞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 놀랐다.

그중 한 아이는 여러 번 하이파이브를 시도해도 도무지 손뼉의 합이 맞질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런 간단한 손뼉 인사가 되지를 않는가. 퍽 당황스러웠다.

다음날 수업시간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몇몇 아이들을 불러내 다시 하이파이브를 시도했다.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대답한다.

"선생님이라 어렵고 부담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키가 다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대답이 쏟아진다.

"아니, 다 맞는 말이지만 진짜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고 부담되기 이전에, 마음을 맞추기 이전에, 키가 다르다는 걸 알기 이전에, 이 앞에는 대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은 꼭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그에게 주의를 기울여도, 다른 상대가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손뼉은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나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바로 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첫 번째 전제입니다."

동아리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인사
합이 맞지 않는 아이들 많아 놀라
상대 마음 맞추기 전에 경청 필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에 집중해보자

요즘 아이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좋거나 밉거나 같은 반이면 다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중에 진짜 짜증나고 재수 없는 놈이 있는데 말이야…'처럼 미워하면서도 그 바탕은 항상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였다.

소개팅을 하기도 전에 MBTI로 나와 다른 사람을 먼저 거르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항상 비슷한 콘텐츠만을 추천해 나를 거대한 우물 속 확증편향된 개구리로 만든다.

내가 수많은 비슷한 나로 중첩되어봤자 고작 나 하나의 시선일 뿐인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고통 없이 성장하길 바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풍부한 어휘라고 자랑한다.

물질이건 정신이건 생명의 기본은 다양성이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겨야 저것이 생긴다(此生故彼生)." 이러한 자각 뒤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此無故彼無),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此滅故彼滅)"는 자비심이 일어난다. 지혜와 자비의 이치를 담은 부처님의 '연기송(緣起頌)'이 바로 귀를 만든다. 귀가 없는데 어찌 말을 전할 수 있으며, 네가 없는데 어찌 내가 있겠는가. 거대한, 부처님의 하이파이브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부처빵 논란'과 종교 감수성

경북 경주의 석굴암 본존불상을 본떠 만든 일명 '부처빵'이 불교계 모욕 논란에 휩싸였다. 부처님 얼굴을 형상화한 빵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포장 가방에 적힌 성경 구절이 비판을 키웠다.

발단은 1월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교를 도발하는 경주 부처빵'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부터다. 부처빵 판매자가 제품의 포장 가방에 'ACTS 19:26'이란 문구를 새겼는데, "불교계를 우상숭배 종교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해당 문구는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의미한다. 이 구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라는 내용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주요 일간지는 이같은 논란을 앞다퉈 보도했고,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성경구절로 불교를 조롱하고 있다" "타인의 종교를 폄하하다 못해 저주하는 행태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처빵 판매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무교지만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은 없었다"며 "앞으로 구절은 삭제하고 판매하겠다"고 해명했다. 판매자는 "빵일 뿐 신이 아니다. 마침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어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매자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왜일까. 이는 국민 모두가 '종교 감수성'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종교 사회 속 종교 간 평화 유지와 공존을 위해선 상호 배려가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미국 및 서구의 다문화·다민족 국가에서 타종교인을 배려해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처빵 판매자는 스스로 '종교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도가 어땠던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불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셈이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종교 감수성'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